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한국영화 저널리즘의 대표 잡지 《스크린》, 아카이브 도서로 출간된다!

한국영상자료원, 아카이브 프리즘 총서 《영화잡지 스크린 1984-1994》 출간
1980-90년대 영화문화의 흐름을 담은 특별 아카이브 도서



▲ 도서 이미지(더 스크린 제공)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흥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25일(화) 아카이브 프리즘 총서 《영화잡지 스크린 1984-1994》를 출간한다. 1984년 창간 이후 해외 영화 소식부터 산업 변화, 정책 이슈까지 폭넓게 다룬 《스크린》은 영화문화를 선도한 대표적 잡지였다. 이번 아카이브 도서는 당시의 감성과 기록을 생생하게 되살리며, 한 시대의 문화적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영화 잡지 《스크린》, 책으로 다시 태어나다

한국영화 저널리즘의 대표 주자였던 《스크린》이 한 권의 책으로 다시 돌아온다. 영상자료원은 기관 창립 50주년을 맞아 아카이브 프리즘 총서의 두 번째 권으로 영화 잡지《스크린》을 조명하는 특별한 책을 발간한다. 이 특별 기획 도서는 1984년 3월 창간 후 한국영화산업이 변화하기 시작한 1994년까지의 《스크린》 기록을 한데 모아, 한국영화와 대중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 대한민국 대표 영화 잡지 《스크린》, 그 역사와 의미

영화 잡지 《스크린》은 1984년 창간되어 2010년까지 발행된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매거진이었다. 당시 한국에는 대중적인 영화 잡지가 없었고, 《스크린》은 해외 스타들의 화보와 신작 정보, 충무로 소식, 영화 이론과 역사까지 아우르며 독자층을 형성했다. 특히 가요, 연극, TV, 드라마 등도 함께 다루며 종합적인 대중문화 잡지 역할을 했다. 당시 한국영화는 '방화'로 불리며 저평가되었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던 시기였고, 《스크린》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중과 영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AFKN 프로그램 소개, '스크린 라이브러리'를 통한 영화 이론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1989년 《로드쇼》가 창간되며 경쟁이 심화되었고, 1990년대 이후 《키노》, 《씨네21》 등 여러 영화 잡지가 등장했으나, 《스크린》은 26년간 '슈가 코팅 매거진'이라는 전략을 통해 독자 친화적인 잡지로 자리 잡았다.



▲ 도서 이미지(더 스크린 제공)

□ 스크린을 한눈에! 책으로 만나는 영화와 대중문화

《아카이브 프리즘 총서: 영화잡지 스크린 1984-1994》는 스크린이 창간된 1984년부터 한국 영화산업이 변화하기 시작한 1994년까지의 주요 내용을 집약한 아카이브 서적이다. 이 책은 ▲역대 스크린 표지 ▲당시 인기 스타들의 화보 및 기사 ▲주목받았던 영화 스틸 및 포스터 ▲스크린 리뷰 및 인터뷰 ▲독자 코너 등으로 구성되며, 1980~2000년대 한국 영화계와 대중문화의 흐름을 생생하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특별 제작된 '2024년판 스크린' 형식의 별책 부록이 포함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흥미로운 구성을 선보인다.

단순한 영화 잡지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적 흐름을 반영한 중요한 기록물로서 《스크린》을 재조명하는 이번 아카이브 프리즘 총서《영화잡지 스크린 1984-1994》를 통해 당시 영화를 사랑했던 독자들에게는 추억을, 새로운 독자들에게는 한국영화 역사의 깊이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크린》을 사랑했던 모든

영화 팬들에게 다시 한번 그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도서는 25일(화)부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정가 2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